***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1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60호

2002년 제1차 전국민중대회

노동자, 노점상, 공무원, 교수, 학생, 등 8천여명 참여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국 민중들의 원망이 종묘공원 하늘을 찔렀다. 노동자, 노점상, 공무원, 교수, 학생, 발전소 가족 등 8000여 명은 30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 모여 ≪2002년 제1차 민중대회≫를 열고 ≪김대중정권 반대≫를 외쳤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 3천여 명을 비롯, 학생 2천여 명,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1천여 명, 발전노조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500여 명, 사회단체 5백여 명 등 8천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8대 핵심 요구≫를 발표했다. (발전소 매각저지, 공무원노조합법성쟁취, WTO쌀개방 반대, 노점상탄압저지, 교육시장화저지, 전쟁책동,무기강매 미국반대, 영세중소비정규직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제 쟁취, 테러방지법 반대.)

이날 민중대회에 참석한 허영구 민주노총 의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4월 2일에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을 것임을 선포한 뒤 ≪발전소 민영화 철회가 달성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할 것≫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천명했다.

명동성당에서 34일째 농성중인 발전노조 김순섭 수석부위원장도 민중대회에 참석해 ≪4월 3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발전소 직원 4000여 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정부의 엄포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면서 민영화 철회를 위해 앞으로 계속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오후 4시 30분에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발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방향으로 행진을 했다. 종각역 부근에서 종각쪽으로 행진을 계속 진행하려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명동 한빛은행 4거리에서 성당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저지선을 설치, 명동성당에서 투쟁하고 있는 발전노조 지도부를 만나러 가는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가로막았다. 8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맨몸으로 경찰들이 들고 있는 방패에 계속 몸을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 선두에 섰던 발전노조 서인천 가족대책위(가대위) 1명이 실신하여 백병원으로 후송됐다.

2002년 제1차 민중대회는 서울지역 외에도 전국 13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오마이뉴스 2002/03/30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부쉬집권으로 사상최악의 단계

≪로동신문≫ 30일부는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위험한 핵공격전략을 수립하고 그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계획에 착수한것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핵무기사용도 서슴지 않으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글의 필자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핵공격기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이미 반세기전부터 감행되였다.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부쉬의 집권으로 사상최악의 단계에 이르고있다. 세계도처에서 강권과 독단을 부리며 오만해 질대로 오만해 진 부쉬호전집단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북침핵전략실현의 길에 서슴없이 뛰여 들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핵공격기도는 날로 무모해 지는 대조선압살책동의 한 고리이며 그의 최절정이다.

미제의 핵전략의 창끝은 조선반도를 겨누고있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키고 전 조선을 타고 앉으려는 것이 미제의 흉악한 야심이다.

미제의 무분별한 책동에 의해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은 현실적인것으로 되고 있다.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 막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미제야말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서슴없이 빠뜨리려고 날뛰는 가장 야만적인 침략자이다.

조선중앙통신 2002/03/30

≪아리랑≫ 공연 앞둔 평양시 모습

아리랑 총연습 장면

4월말부터 열리는 종합체육문화행사인 ≪아리랑≫을 앞두고 이북에서는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3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평양시는 아리랑 공연을 앞두고 주요 운송수단인 궤도전차나 무궤도전차, 버스 등을 깨끗하게 도색했다. 또 4월부터 6월 사이 평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를 증편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교통경찰에 해당하는 ≪교통안전원≫의 제복 역시 기존의 하늘색에서 화려한 듯한 청색으로 일제히 바뀌었으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인민보안원의 복장도 국방색에서 선명한 감색으로 교체됐다. 특히 호텔업계는 호황을 기대하면서 건물 수리 · 정비를 다그치고 있는데, 특급호텔인 고려호텔에서 3급 호텔인 해방산여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호텔을 산뜻하게 단장하고 있다.

각지 유원지도 손님맞이 준비로 부산한데, 평양의 대표적 유원지 중 한 곳인 만경대유희장은 하루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원지 면적을 배로 확장하고 놀이시설도 추가로 설치했다.

조선신보는 특히 ≪각 관광지에서 아리랑 공연 기간 서비스를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북은 또 미국 통신사인 AP의 자회사인 APTN과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등지에서 온 시찰단에게 지난달 7일과 19일, 24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아리랑 공연 연습을 공개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03/31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

4 세기와더불어
- 5장 2절 9.18사변 (2)

6 칭송
- 꽃 계절
- 주체사상연구보급조직 100여개 나라에 결성

7 구국의 소리
- 한민전 대변인 담화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30일
-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
- ≪F-15K≫전투기도입 반대 투쟁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30일 보도
- 조일관계의 중핵문제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11 평양방송
-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는 남조선 인민들

12 아리랑뉴스
- 2002년 1차 대구경북민중대회
- 故최옥란씨 장례위 ≪경찰규탄≫집회
- 민주노총 ≪2차 연대총파업≫ 강행
- 부패방지위, 장관급등 3명 첫고발
- 박정희 기념관, 기공식 없이 착공
- 군부내 최대 친미파, 김동신
- ≪절반의 반환≫ 半만 찾은 자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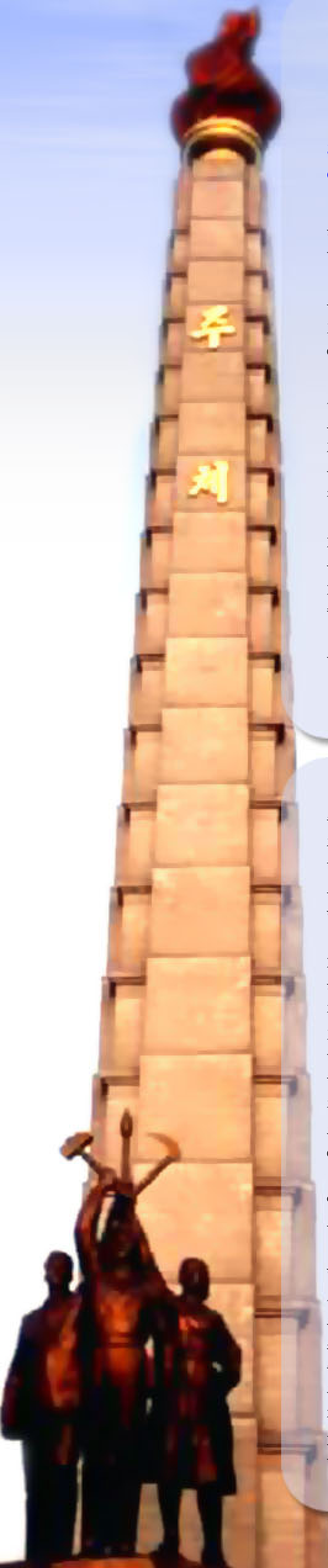
12

15 운동강좌
-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전략전술 (4)

16 조국통일3대현장
-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2)

주체사상에 대하여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3)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사회역사적 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입니다.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창조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 요구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적 활동의 대상은 자연과 사회입니다. 사람은 바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만들며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합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할 것을 요구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민대중의 창조적 노동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재부를 만들어 왔으며 낡은 것을 변혁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인민대중의 끊임없는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는 발전하여 왔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은 투쟁을 동반합니다. 창조적 과정은 곧 투쟁과정이며 투쟁을 떠나서는 새것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고 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여 나가는 과정은 치열한 계급투쟁과정입니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납니다. 낡은 제도, 낡은 생활을 보존하려는 세력은 스스로 자기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낡은 세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전역사에 걸쳐 이룩한 모든 진보와 변혁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의 열매인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과정은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사회생산력의 발전역사는 자연을 정복하고 사람들의 창조적 힘이 장성하여 온 역사이며 사회혁명의 역사는 사회를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능력이 강화되어온 역사입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이 장성하는 데 따라 사회역사적 운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노동계급에 의하여 조직전개되는 공산주의운동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운동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은 역사에 이미 있었던 모든 계급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류의 최고이상사회,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입니다. 인민대중의 창조력도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가장 높이 발양됩니다. 적대계급사회의 전기간 지배계급에 의하여 창조적 활동을 억제당하여온 근로인민대중은 노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의하여 비로소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 나가는 역사의 참다운 창조자로 됩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인 혁명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창조적 입장을 확고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창조적 입장을 지키는 것은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창조적 입장에 튼튼히 서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옳게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입장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자기운명의 개척자로서 인민대중이 마땅히 견지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할 수 없으며 자기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창조적 입장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을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창조적 입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입니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것을 높이 발양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고 기본동력이며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와 힘의 소유자입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야 객관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가며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난관을 대중적 투쟁으로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방법입니다.

혁명운동은 언제나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체적 현실속에서 진행됩니다. 혁명운동은 온갖 도식과 교조를 배격하며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낡은 관점을 반대합니다.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창발성이 억제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고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대하는 입장을 지켜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옳은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능숙하게 구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창조적 입장은 교조적 태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사고로 현실을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모든 것을 그에 맞게 풀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혁명운동이 심화발전된 우리시대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 방법입니다.

우리시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창조적 입장은 오늘의 시대발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의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합니다.

4)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고 승리합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밝히시였습니다.

사상의식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가장 고급한 속성입니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적 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발전된 기관인 뇌수의 고급한 기능입니다. 뇌수는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며 뇌수의 기능인 의식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휘합니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합니다. 사상의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 자각에 의거할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 나갈 수 있습니다.

식의 규제와 조절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입니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을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혁명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입니다. 혁명운동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 석으로부터 시작되고 무장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사상의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계급적 성격을 규제합니다. 계급사회에서 초계급적인 사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은 계급의식입니다. 계급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입장은 계급의식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계급적 처지에 기초를 두며 그에 의하여 제약됩니다. 그러나 사회계급적 처지는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을 거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느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어느 계급의 사상을 가졌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진계급의 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에만 옳은 계급적 입장을 가질 수 있으며 혁명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습니다.

혁명운동에서 발휘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은 사상문제입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혁명적 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높이 발양될 수 없습니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군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혁명투쟁에 일떠설 수 없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계급적 이해관계를 자각한 대중만이 자기의 혁명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상의식의 역할은 혁명운동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운동은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사람들의 높은 의식성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창조되는 사회입니다.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과정에서 사상의식의 역할은 비할 바 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기아와 몽둥이의 규율에 의거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에 의거합니다. 물론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의 조건에서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되는 과정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청산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자각성의 의의는 더욱더 커집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의 선진사상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까지도 황금의 부속물로 만들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대중을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따라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비상히 큰 역할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자체의 특성과도 관련됩니다.

사회발전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그 계급적 성격과 내용에 의존합니다. 착취계급의 반동사상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며 진보적 계급의 선진사상은 사회발전을 추동합니다. 가장 자주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역사상의 그 어느 선진사상에도 비할 바 없이 큰 혁명적 작용을 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사상은 사회의 발전법칙과 인민대중의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물질적 힘으로 전변됩니다. 노동계급의 사상은 현실을 인식하고 변혁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무기입니다. 역사의 전진운동을 저해하면서 썩어빠진 낡은 제도를 변호하는 착취계급의 반동사상과는 달리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역사의 전진운동을 추동하며 이끌어 나가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혁명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인 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는 것은 사상적 요인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 것을 풀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상적 요인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혁명운동에서는 물질적 요인도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달립니다. 물질적 조건 자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빨리 갖추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혁명은 혁명가들과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혁명투쟁이란 원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유리한 환경속에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성숙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사상적 요인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에 의거하여 모든 조건을 적극적으로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 방법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의식화하여 그들이 스스로 투쟁에 떨쳐 나서게 함으로써 혁명에서 승리하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수행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전체인민을 각성시키고 발동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사상적 무기가 있습니다. 자본가계급도 자기의 사상을 퍼뜨리려고 애쓰지만 자본주의사상은 인민대중의 이익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대중의 사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계급의 사상만이 전체인민에게 접수될 수 있고 온 사회를 유일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 자각에 의거할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 계속)

2권 제4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2. 9 · 18사변(2)

나는 그때 일제의 만주침략은 시간상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조선을 먹은 다음에는 만몽을 먹고 만몽을 먹은 다음에는 중국을 먹으며 중국을 먹은 다음에는 아세아를 제패하려는 것은 ≪다나까상주서≫에도 규정되여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본국책이였다.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군국주의 일본의 강철바퀴는 이 국책에 따라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을 구실로 삼아 관동군병력을 심양에 집결시키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진한장은 그때 일본군대가 당장 만주를 먹겠는데 우리는 모두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으니 어쩌면 좋은가고 하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안타까와하였다. 그는 국민당의 장학량군벌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했지만 일단 국권을 건드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화민족 앞에서의 체면유지와 수억만 민중의 압력 때문에 저항해 나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였다.

나는 진한장에게 국민당 군벌이 저항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장작림의 폭사사건 때를 상기해보라. 관동군의 모략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엄연한 증거도 나타났지만 동북군벌은 그때 진상규명도 하지 않았고 관동군에 한마디의 책임추궁조차 하지 않았다. 지어는 일본조객들까지 고인의 령전에 받아들이였다. 이것은 그 어떤 신중성이나 취약성, 우유부단성으로만 보겠는가. 국민당은 공산당의 박멸과 로농홍군에 대한 ≪토벌≫에 광분하여 수십만 대군을 강서중앙쏘베트구에 투입하고 있다. 일제에게 국토의 일부를 떼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과 로농홍군을 박멸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속셈이다. 외적으로 치기전에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고 국내의 정국부터 평정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로선이다. 자기 선친이 폭사한 다음 국민당 쪽에 아주 기울어진 장학량은 그 저주로운 노선에 맹종하고 있다. 때문에 저항은 없을 것이며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허황한 일이다.

진한장은 신중하게 내 말을 들었으나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장학량군벌이 아무리 국민당 로선에 추종한다하여도 자기 군벌의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반인 동북땅을 완전히 잃게 되는 마당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략자들에게 저항해 나서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종시 군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9.8사변이 터지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장학량군대가 아무 저항도 없이 심양을 내주었으니 진한장도 주먹을 부르쥐고 사색이 되어 나한테로 뛰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성주 동무, 나는 몽상가였고 철부지였소≫

진한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을 부르 떨었다. 그런 다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계속 타매하였다.

≪장학량과 같은 사람이 동북땅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으니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였소. 장학량은 중화민족의 신의를 버리고 항일을 포기한 겁쟁이고 패전장군이요. 전에 심양에 가보니 온 도시에 군벌군이 모래알처럼 쭉 깔려있더구만. 골목마다 신식총을 멘 군대가 씨글씨글했소. 그런데 그 많던 군대가 총 한방 쏘지 않고 퇴각하였으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소. 이걸 어떻게 리해해야 하오?≫매사에 침착하고 온화하던 진한장도 그날 아침만은 감정을 다잡지 목하고 목청을 돋구어 연방 고함을 질렀다.

장학량이 후에는 항일을 주장하고 국공합작에도 기여했지만 만주사변 때에는 그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나는 진한장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조용히 그를 달래였다.

≪진동무, 진정하오.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부터 예견했던 바가 아니였소. 그런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떠드오? 우리는 이제부터 사태발전을 랭철하게 주시하면서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오.≫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러오. 내가 장학량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소.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소. 한잠도 못자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곧장 이리로 달려왔소.

성주동무, 장학량이 통솔하는 동북군의 수효가 얼마인지 아오? 자그마치 30만이나 된다오. 30만! 30만이란게 간단한 숫자요? 그런데 그 30만이 총 한방 쏴보지 않고 하루밤 사이에 심양을 내주었으니. 아, 우리 중화민족이 그래 이렇게도 용렬하고 무력하단 말인가! 공자와 제갈량과 두보와 손중산의 조국이 이렇게도 망해간단 말인가!≫

진한장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피방울 같은 눈물을 쏟아내리고 있었다.

그가 자기 민족앞에 닥쳐온 비운을 생각하며 그토록 분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수 있는 순결한 감정이며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였다.

나도 언젠가는 고행의 다박솔 밑에서 왜적에게 짓밟힌 조국을 생각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성안에 갔다가 일본경찰의 구두발에 만신창이가 되어 꿈틀거리던 어떤 로인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진종일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만경봉에서 하루해를 보내던 어느 일요일의 석양에 있은 일이었다.

나는 그날 진한장처럼 우리 나라 력사가 자그마치 5천년이라는데 그토록 자랑스러운 력사국이 어떻게 되어 하루아침에 망국의 수치를 당한단 말인가, 이 수치를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하고 비분에 넘쳐 생각하였다.

그러고보면 나나 진한장은 똑같은 수치를 체험한 셈이다. 이전에는 리념의 공통성이 우리를 접근시켰다면 그날부터는 처지의 공통성이 우리의 우정을 배가해 주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불행한 때일수록 더 친밀해지고 우의와 사랑도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날 조중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친형제와 같이 쉽게 가까와질수 있은 것은 바로 처지의 공통성, 목적의 공통성, 위업의 공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리윤을 위해서 서로 일시적으로 결탁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투쟁목표로 되는 인간의 해방과 복리를 위해 공고한 국제주의단결을 이룩해간다. 나는 진한장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었으며 중화민족의 수난을 조선민족의 수난으로 받아들이었다.

만일 수십수백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장개석과 장학량을 비롯한 정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에게 돈화의 한 청년한테 있는 애국심이나 통찰력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신이나 자기들의 당파적 리해관계 우에 놓고 반공이 아니라 련공을 하면 전체 민중과 무장력을 항전에로 불러일으켰다면 일제의 침략을 그 첫 걸음에서 좌절시키고 령토와 인민을 영예롭게 지켜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도 민족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벌써 장개석이 장학량의 동북군에 ≪일본군측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성을 견지하며 백방으로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하달하여 군의 저항을 사전에 억제한 사실은 그후 수억만 중국인민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9.18사변이 폭발한 후에도 장개석의 남경정부는 중국인민과 중국군대는 일본군에 저항하지 말고 평정과 인내성을 발휘할 데 대한 투항주의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저락시키었다. 만주의 운명은 벌써 9.18사변 전에 결정된 셈이었다. 지어 그들은 대표를 동경에 파견하여 일본정부와 비밀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이 교섭과정에 장개석은 일본이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쏘중접경지대를 일본제국주의들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은 매국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장개석은 수억만 인구와 수백만평바키로메터의 면적으로 자랑하는 나라의 주석이라는 자존심마저 줴버리고 일본사람들에게 국토의 한부분을 큼직하게 떼주는 것과 같은 망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한 것은 그가 일본의 대포보다 지주, 매판자본가와 국민당관료들을 반대하는 국내인민의 총구를 더 두려워한데 있다.

그리하여 동북변방군의 30만 대군은 자기 무장력의 25분의 1도 못되는 관동군에게 밀려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만주땅 전체를 버리고 패주하게 되었다.

나는 망국의 비분에 젖어 통곡하는 진한장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어떤 당파나 군벌이나 정치세력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소. 오직 자기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하오. 대세는 우리들 자신이 민중을 무장시켜 반일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소. 살길은 무장을 잡는데 있소.≫ 진한장은 말없이 나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날 진한장의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온종일 그

장개석과 미군사령관 조셉 스틸웰

➡

진한장

와 함께 보냈다. 망국의 설움으로 말하면 사실 진한장보다도 내가 더 많았다. 진한장은 조국의 일부를 떼운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의 옹근 조국을 송두리채 잃어버린 망국민의 아들이었다.

진한장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는 바람에 나는 다음날 그를 따라 돈화로 향하였다.

9.18사변은 조선과 중국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일본이 조선을 삼킬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세계가 9.18의 포성에 다시한번 비명을 질렀다. 인류는 그것을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았다.

일본이 이 사변을 중일간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적인 돌발사건으로 묘사했지만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곧이 듣지 않았다. 공정한 세계여론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공격을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략행위로 규탄하였으며 일본이 강점지역에서 철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창끝이 쏘련으로 돌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련맹이 만주에 릿튼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그 조사단도 정의의 편에 서서 흑백을 똑똑히 갈라내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대륙을 뒤흔들고 일본군의 맹공격에 장학량 군벌의 막강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총퇴각한 사실은 수억만사람들의 의기를 꺽어놓았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승리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신화는 한갓 신화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되었다. 피눈물나는 분노와 함께 공포의 파도가 조선과 만주는 물론, 온 아세아를 휩쓸었다. 그 공포의 파도 속에서 모든 무장력과 정치세력, 혁명단체, 형형색색의 우국지사들과 저명인사들이 자기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9.18사변의 폭발은 붕괴상태에 있던 독립군 잔여세력의 대부분을 산간오지로 몰아넣었으며 실력배양을 고창하던 사람들을 일제의 품으로 밀어던지였다. 독립군들이 손때묻은 총을 땅에 묻고 어깨를 움츠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친일을 부르짖었다. 독립선언을 연발하며 구국항쟁을 웨치던 우국지사들이 ≪망향가≫를 부르며 황황히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전날의 활동거점들을 버리고 퇴각하는 장학량군의 뒤를 따라 금주로, 장사로, 서안으로 달아나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

애국과 매국, 반일과 친일, 자기희생과 보신을 가리는 착잡한 분해과정이 9.18의 포성과 함께 민족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각자가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 양극에도 가붙고 음극에도 가붙었다. 만주사변은 민족의 매 성원들의 동향과 본심을 식별하는 하나의 시금석과도 같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돈화에서 진한장과 함께 며칠을 두고 9.18사변에 대한 론의를 계속하였다. 우리도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였다. 무장을 들 때가 되었다는 판단은 쉽게 하였으나 일본군이 사태처럼 쓸어드는 정국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침착성을 인차 회복하고 사태발전을 랭철하게 주시하였다.

그 당시 나는 일제의 만주침략이 조선혁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일본군의 만주출병이 현실로 되고 만주점령이 기정사실로 됨으로써 우리는 자기 곁에 적을 주게 되었다. ≪미쯔야협약≫과 같은 것을 턱에 걸고 일본관헌들이 몇해동안 중국반동군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심하게 하였지만 조선땅에 있는 군경들이 월경하여 만주에 들어오는 실례는 드물었다. 중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경들이 넘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만주지방에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는 것은 대체로 이 일대에 와있는 일본령사관 경찰들이 하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일대에 조선강점군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로씨야공민전쟁 당시 씨비리를 들이쳤다가 철수할 때 중국측의 량해를 얻어 훈춘에 떨어진 두개 중대력량이 동북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강점군의 전부였다.

그러나 9.18사변과 함께 만주는 일본군대의 란무장으로 전변되었다. 조선에서도 상해에서도 일본에서도 수만명의 일본군대가 떼를 지어 만주땅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만주대륙은 적아가 한데 엉켜돌아가는 최전선으로 되었다. 조선과 만주를 갈라놓고 있는 국경은 사실상 일본군의 침공과 함께 제거된 셈이었다.

일본군에 의한 만주강점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아온 우리들의 투쟁에 험악한 난국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본심의 하나가 이 일대에서 앙양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교살하고 조선국내의 치안유지를 용이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만큼 우리는 금후 자기의 활동에서 여러모로 일본군경들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조선국내에서 적용되던 ≪신 치안유지법≫의 쇠몽둥이는 만주지방 조선사람들의 머리우에서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일본이 만주에 괴뢰국가를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었다. 실지로 그후 일본이 조작해낸 ≪만주국≫의 존재는 우리의 활동에서 막대한 장애로 되었다. 일본의 만주강점은 이 일대에 울짱을 박고 살아온 수십만을 헤아리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도탄에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왜적이 없는 고장에서 총독정치의 멍에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조선이주민들의 자유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인정풍토가 생소한 이역에 삶의 터전을 옮긴 류랑민들의 리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9.18사변을 두고 불리한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불리한 저들만큼 따져보면서 비관과 영탄에 빠졌더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망에 짓눌려 주저앉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어째서인지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는 조선속담을 생각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 터득하고 정식화해놓은 그 인생철학이 나에게 심오한 진리를 귀뜸해주었다.

(만주는 범의 굴로 되었다. 이 굴에서 일본제국주의라는 범을 잡아야 한다. 이제는 무장을 들고 투쟁할 때가 되었다. 이런 때에 싸워서 결판을 짓지 못하면 영영 사람구실을 못한다.)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어서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일제는 전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전쟁물자보급을 위한 경제적 수탈에 미쳐날뛸 것이다.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은 극한점에 달할 것이며 조선민족의 반일기운은 고조될 것이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면 인민대중이 물심량면으로 우리를 적극 지지성원해줄 것이다.

중국의 수억만 인민대중도 거족적인 반일항전에 떨쳐나설 것이다.

오늘의 만주침공이 래일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 것이며 중국대륙은 순식간에 전면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주정신이 강한 중국인민들이 자기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을 수수방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곁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용허하지 않으며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할 일념에 불타는 중국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수억만 중국의 형제들이 있다. 어제날 조선사람들을 망국민이라고 불쌍하게 여기던 그들이 래일은 단순한 동정자로부터 믿음직한 동맹자가 되어 한 전호에서 같은 과녁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익측에는 언제나 중국인민이라는 위대한 동맹자, 동맹군이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이 중국관내에로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 구미렬강들의 리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에로 가는 도화선으로 될 것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이 세계대전에 말려들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핍과 고갈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9.18사변후 봉천에 배치된 관동군 29련대

일본이 만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통치구역을 더 넓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구역의 확대는 불필코 통치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를 통치하는데서 종전의 밀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일본제국주의를 침략자로 규탄하게 될 것이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혁명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장학량군이 총퇴각을 시작하고 일제침략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우리 눈앞에서는 놀라운 사태들이 벌어졌다. 관공서의 관리들과 공안국의 경찰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버리었다. 며칠 사이에 군벌통치의 지방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걸었다.

장학량의 패주와 함께 군벌통치체제가 마비된 것이다.

일제침략군은 전과를 확대하기에 급급하여 치안유지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지방에서는 한동안 무정부상태가 지속되었다. 우리는 일제가 대륙에 자기들의 통치체제를 세울 때까지 얼마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타산하였다. 이 공백상태야말로 우리들이 마음놓고 무장대오를 꾸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되었다.

혁명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조선혁명앞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골쇄신할 때가 온 것이다.

9.18사변은 중국인민들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곧 이 일대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민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침공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로서 이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하였다.

나는 무장대오의 조직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끝)

송시

꽃 계절

눈이 부시다
시리도록
시리도록
눈이 부시다

여기 남산에
북악산 자락에
그리고 세종로 로타리에
광화문 어귀에

한껏 꽃망울 터뜨린
그토록 화사한 꽃내음
그 싱싱한 잎잎에 눈물이 겹도록 부시다
시리도록 시리도록 눈이 부시다

아- 4월
꽃 계절 4월
꽃 계절 웃는 4월인가
4월에 웃는 꽃바다인가

무드러지도록 무드러지도록 피어 만발한
떨기떨기 이 꽃잎 속에
바야흐로 노래하는 우리의 태양절
온 누리가 칭송하는 겨레의 태양절

시리찬 계곡에도 신기한 꽃 피었단다
서귀포 백사장에도 때아닌 꽃 피었거늘
산악의 메부리 그 아슬한 벼랑 끝에도
피어 무드러진 백송이 꽃

사람들은 하늘에도 꽃이 피었다,
저저마다 경탄의 함성
저저마다 기쁨에 겨워
안달이다

그리하여
온 천지강산에 풍겨풍겨 목메이는 꽃내음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 적셔주는
향긋한 봄내음 싱싱한 봄내음

하늘 중천에 세세연년 해는 떴어도
밤만 아니라 한낮조차 어둡던 세월
혁명 만경대 고향집에서
이 4월에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

한낮만이 아닌 한밤에조차
환히 밝아져 너무너무 밝아져
이제 4월은 이 민중이 떠받드는
영원한 태양절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피어난 꽃인가
그래서,
그래서 풍기는 꽃내음이런가

아- 4월
천지강산에 축원의 꽃 바다 펼치는 4월
4월은 하늘이 낸 꽃 계절이런가
4월은 일제히 터쳐지는 꽃망울과 더불어
기쁨이 터쳐지는 행복의 계절이런가

뉘라서 이 계절에
천지강산에만 꽃이 핀다 했던가
저 평양성 꽃에 묻혀진 만수대언덕
그 눈부신 언덕으로 달려가는
여기 남녘 민중의 가슴가슴에도
주석님 우러르는 충정의 꽃
피어피어 만발하건만

아- 정녕 이 4월
꽃의 계절 아닌가
만민의 충정, 축원의
꽃 계절이 아니던가

흠모

주체사상연구보급조직 100여개 나라에 결성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해 나가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며 구현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세계적판도에서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뜻 깊은 올해와 새 세기 첫해에 기네의 꼬나크리와 제레꼬레주,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결성된것을 비롯하여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베닌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메히꼬주체철학연구소, 가이아나종합대학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카나다아시아주체사상연구협회, 미국 아시아주체련대성 및 사회과학협회 등 20여개 연구조직들이 새로 더 늘어 났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로씨야 **김정일**주의 연구쎈터, 인디아 **김정일**로작 연구회, 말리 청년자주혁명전선 **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 탄자니아 **김정일**주의연구소조, 앙골라 **김정일**동지의 로작연구소조, 꽁고 **김정일**주의연구보급협회를 비롯하여 일본, 몽골, 나이제리아, 가이아나, 민주꽁고, 기네, 벌가리아, 로므니아, 체스꼬, 이딸리아, 카나다, 미국 등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10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생겨 났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30여개의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무어 진 나라수는 100여개에 이르게 되였다.

또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지역의 주체사상연구소가 각각 조직됨으로써 주체사상연구보급조직들의 정연한 체계가 서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3월 30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20돌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30일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지 20돌이 되는 것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민중은 주체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송가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20돌을 맞고 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을 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 (1982)년 3월 31일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셨다.

사상이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작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지도적 원칙과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정연하게 정립하시고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혁명성을 철의 논리로 심오하게 밝히시어 주체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었다.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심원한 원리들과 사상이론들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킨 주체사상의 불멸의 총서이다.

이 불멸의 고전적 문헌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귀감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인류사상사의 영세불후할 기념비이며 장군님의 사상이론적 업적 가운데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세계사적 대공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노작을 발표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과 인류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들을 깊이 인식하고 혁명실천에 정확히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체의 사상이론적 보물고를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노작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환호속에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번역출판되었으며 지난 20년간 자주성을 위한 우리 민족과 인류의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혁명의 교과서, 주체사상의 대백과전서로 그 정당성과 불패의 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북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주체의 기치 드높이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수며 저작에서 천명된 탁월한 사상과 이론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였다.

오늘 이북 민중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희세의 영장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20세기를 주체의 사회주의 수호전의 자랑찬 승리로, 영광찬 **김일성**세기로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21세기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영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사상이론활동과 현명한 영도에 의해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공인되고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고 구현해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되었다.

오늘 세계 100여개 나라들에서 110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는 세계적 규모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노작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고전적 노작을 받아안은 각계 애국민중들 속에서는 주체사상신봉자대열이 날로 확대되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이 강화발전되고 있다.

더욱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족자주통일강령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이후 경향 각지에서 **김정일**숭배열풍이 거세차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서울에서 주체사상대토론회가 수차례나 공개적으로 열렸으며 오늘도 학계에서 주체사상연구가 계속 심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주체사상 관련 노작들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탁월한 사상이론과 특출한 영도실력으로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영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의 자주적 통일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문제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중의 심장속에 간직된 철석의 신념이고 불변의 의지이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관철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갈 것이며 전국민과 함께 주체의 기치높이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 민족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30일

공안당국 규탄 성명발표

전국여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부산의 ≪통일시대 젊은 벗≫은 정보원이 애국청년학생들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여대협은 3월 25일 ≪6.15이행의 기수 범청학련 남측본부 탄압하며 6.15시대에 역행하는 공안당국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정보원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을 비롯해 그 후원회 성원들을 연행, 탄압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바치고 있는 범청학련에 대한 이러한 폭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범청학련을 이적단체로 모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공안당국은 스스로 반6.15세력임을 드러내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책동을 심화시키고 영구분열을 꾀하려 하고 있으며 공안당국은 그에 발맞추어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공안당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연습에 동조하며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 앞장에 서는 범청학련 등 애국적인 단체들에 대해 탄압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통일시대 젊은 벗≫은 3월 26일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후원회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정보원이 범청학련과 후원회성원들을 탄압하는 이유에 대해 밝히고 범청학련을 합법화하기 위한 이적규정철회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집회 전국철도노조

전국철도노조원 1500여명은 노조원 57명에 대한 고소고발철회 등을 요구해 3월 2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집회에서 철도청의 고소고발철회와 구속노동자석방 그리고 민영화방침철회 등을 주장하며 3시간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3월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초 노조원의 의견을 모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산업연맹 등 대규모 사업장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가세하기로 하는 등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속산업연맹은 연맹산하에 있는 자동차 3개사와 한국중공업 등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연맹 산하 사회보험노조 등과 화학연맹 산하 한국합섬 등도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는 서울대병원 등 대규모 병원노조들이 4월 2일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3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대북기본노선≫

최근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꾸며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안에 조직된 국가혁신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북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원칙≫,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 ≪국토개발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꾸며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문서는 이회창일당이야말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집단이라는 것을 또다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소속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뿌며낸 것은 대북강경책에 매어달리고 있는 부시정권에 잘보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룩해보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든 ≪분리원칙≫이란 북의 제도변경을 떠든 부시의 망언을 되풀이한 것으로써 이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전면 대치되고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민족반통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미국이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고 대북강경정책을 통해서 남북대결과 전쟁도발책동을 광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평화, 후교류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세에 역행하는 이회창집단의 이같은 경거망동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심지어 한반도 ≪국토개발계획≫까지 세운 것은 한나라당집단의 북침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써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과 공모해서 남북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개시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공연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은 이미 미국측에도 전달되어 지지를 받았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는 친미사대매국노집단인 한나라당의 정권장악음모를 분쇄해야한다.≫

노래≪또라이 부시≫ 창작보급

각계에서 반미반부시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를 조소하는 노래 ≪또라이 부시≫가 창작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자는 노래 제목을 ≪또라이 부시≫라고 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헛소리를 자주하는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점에서 볼때 부시에게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이 통일의 이정표로 되는 것은 여기에 조국통일실현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 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데요. 6.15남북공동선언은 바로 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나라 통일문제해결의 출발점, 기초로 됩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이 이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에만 통일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하나인 자주의 원칙을 구현하여 우리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는데요. 민족자주는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 기본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며 그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 자신입니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의 통일문제에는 간섭할 권리도 없으며 오직 우리 민족만이 자기의 민족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통일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세가 우리 나라 분열의 장본인이고 조국통일의 최고장애물로 되고 있는 여건에서 통일위업을 그 주인인 우리 민중이 아닌 외세가 대신해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외세에 의존해서 통일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외세에 내맡기는 자멸행위이며 어리석은 짓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온 겨레는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주의식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데로 나가는 것은 남북공동선언의 진수를 거세말살하려는 것으로써 민족반역행위로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은 또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하나인 평화통일원칙을 구현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칙적 문제입니다.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 싸워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남과 북이 서로 싸워야 할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싸우면 손해를 볼 것은 우리 민족이고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뿐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숙원을 담아 두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방안과 남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데 기초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표방하면서 연방제방식의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한 것으로써 확신성있게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3헌장기념탑 부주제부각상 ≪조국통일3대원칙편≫

지금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이 공동선언에서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양보라느니 뭐니 하는 것은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말살하기 위한 책동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하나인 민족대단결의 원칙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은 없으며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하나의 주체적 역량을 이루면 그것이 곧 통일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이 밝힌 민족자주 그 자체가 온 민족의 단결을 전제로 한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이북으로의 송환,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남과 북사이의 여러 분야에 걸치는 내왕과 접촉, 교류와 협력이 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진행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하여 남과 북의 각계 민중사이에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두터워지면서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한층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남북공동선언이 구현하고 있는 민족대단결원칙의 거대한 활력과 견인력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민족자주의 평화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지금 미제의 무분별한 대북압살정책과 이 땅의 반통일세력의 반민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있는 정세는 온 겨레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나갈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민족공동의 통일기치인 남북공동선언이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히고 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기어코 성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7일~28일

≪F-15K≫전투기 도입 반대투쟁

이미 보도된 것처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가 지난 27일 국방부 ***앞에서 ≪F-15K≫선정철회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진데 이어 같은 날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종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F-15K≫기 선정중단을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과 부시를 저주, 규탄하는 내용들이 ******. 이것은 이 땅의 각계 민중의 반미반전투쟁의지를 보여주는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F-15K≫기는 민항기도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도입이 북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북침은 곧 핵전쟁을 의미하며 핵전쟁은 민족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온 민족이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통한 자주평화통일을 갈망하며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이를 역행해 북침을 위한 전투기 기종책동에 망동하는 한미호전분자들의 작태야말로 우리 민족을 파멸에로 몰아넣는 용납못할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F-15K≫전투기도입책동은 그 누구를 위한 선사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미국 군수업체들을 복구하자는데 또하나의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F-15K≫기로 말하면 1970년대에 개발된 한세대 뒤떨어진 낙후한 것으로써 판로마저 막혀버린 기종입니다. 이로부터 ≪F-15K≫기를 생산하는 보잉의 미국 뉴욕공장은 지금 폐쇄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으로써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저들의 식민지 민족에 대한 무기강매에서 찾고 부시를 비롯한 미국 호전광들이 이 땅에 연이어 날아들어 ≪F-15K≫구매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F-15K≫도입이 우리 민족에는 백해무익하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반민족적 행위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미 전부터 미국의 ≪F-15K≫기 강매를 결사반대해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경제예속책동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생계를 유지할 한푼의 돈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군당국이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에 편승해 6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까지 미국에 퍼부으려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를 가진 인간으로써는 할 수 없는 가장 흉악한 사대매국행위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덮씌우고 그 댓가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빨아가려는 미국의 ≪F-15K≫기 구매강요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강도적인 전투기구매강요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군당국자들도 미국에 추종하고 있는 저들의 매국배족행위가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민의에 호응해 나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30일

인도네시아대통령 평양 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던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각하가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30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는 수도의 수많은 군중들이 대통령각하를 환송하기 위하여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 있었다. 대통령과 남편, 그 일행이 비행장에 나왔다. 비행장에서는 대통령각하를 환송하는 의식이 있었다.

조선 애국가와 인도네시아 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영남위원장과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이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대통령에게 녀성근로자가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영남위원장과 함께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 위원장인 강능수문화상, 리광호과학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손님들을 전송하였다. 조선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부하리 에펜디와 대사관성원들이 대통령과 그 일행을 바래웠다.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사회과학부문 학술토론회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사회과학부문 학술토론회가 29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학설이며 인류가 영원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폭 넓고 깊이 있게 해설론증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류의 자주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 주는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특별히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독창적인 주체의 선군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길을 열어 놓으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선군혁명사상의 위대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이 혁명하는 인민들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신이며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끝까지 구현해 나가려는 조선인민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로동신문,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군사적업적에 언급

《로동신문》 30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시며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그이께서 20대에 제국주의강적과의 대전을 선포하시고 30대에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40대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격멸시키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서는 자위적인 군사적힘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내놓으시고 혁명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전쟁을 이끄시는 나날에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전략전술을 수많이 창조하여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령군술은 병사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주체의 령도예술이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군인대중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혁명적령군예술이다.

신문은 **김일성**주석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강철의 담력과 의지를 지니신 군사의 영재이시였고 무적의 장군이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세기를 이어 빛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들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을 론평

30일부 이곳 신문들은 최근 남조선의 《한나라당》이 꾸며 낸 《당의 대북정책》의 골격으로 되는 이른바 《대북기본로선》에 대해 평하였다. 《로동신문》은 《기본로선》이 《당국사이의 교류협력은 상호주의에 립각하여 추진되여야 한다》고 한것은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분렬의 론리, 대결의 론리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문제를 등가교환으로 해결하겠다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며 더우기 민족공동의 가치기준도 없는 《상호주의》론리를 북남관계에 적용하겠다는것은 우리와 대결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것외 다른것이 아니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무슨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의 《인도주의지원》이란것도 몇푼의 돈과 물건짝을 미끼로 우리를 《개혁》, 《개방》에로 유도하고 우리 내부를 흔들어 보려는것이라고 신문은 까밝혔다. 신문은 《기본로선》에 《평화보장이 없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여 있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협력, 교류를 반대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차단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로서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과 같은 적십자인도주의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기본로선》에 있는 그 무슨 《북부개발계획》이란것도 본질상 선행통치배들의 《이북수복》계획의 재판이며 변종이라고 락인하였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버젓이 당의 《로선》에 못 박고 《북부개발계획》과 같은 《북침통일》계획까지 꾸며 내려고 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도발이라고 신문은 썼다. 론평의 필자는 결국 《한나라당》이 꾸며 낸 《대북기본로선》이란것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선포하고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으르렁대는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북침전쟁선언이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분렬과 대결의 선언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주조선》도 론평에서 《대북기본로선》을 민족분렬을 고착, 지속시키기 위한 대결선언, 분렬선언으로 단죄하였다.

선전화들을 출판
태양절, 건군 70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선전화들을 새로 출판하여 내놓았다.

선전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 만세》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붉은색바탕에 모시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과 천리마동상, 주체사상탑 등 태양의 력사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형상하여 수령님의 영생을 삼가 축원하는 조선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선전화 《태양절》에는 《위대한 수령님탄생 90돐 기념》이라는 글발이 웃부분에 씌여 져 있다.

그리고 화창한 봄날의 만경대고향집과 그 아래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그려 져 있다.

이와 함께 건군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와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등의 선전화들도 나왔다.

로씨야대통령악단 아리랑공연에 감동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 성원들이 28일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종합련습중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장면들을 관람하였다.

경기장의 공간을 꽉 채우며 립체적으로 펼쳐 지는 황홀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배경대의 훌륭한 기교장면들을 보며 대통령악단의 전체 성원들은 시종 커다란 감동을 표시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 수석지휘자이며 예술단장인 빠웰 오브샨니꼬브는 오늘 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같은 거대하고 훌륭한 작품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본적이 없고 상상도 못해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놀라운 조직력과 체조 및 예술동작들을 하나와 같이 일치시킨 숙련, 굉장한 무대장치물과 레이자조명기를 비롯한 전광장치들의 예술적효과, 살아 움직이는것과 같은 배경대의 조화 등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민족의 정서가 넘치는 음악이 아주 훌륭하다.

나뿐이 아니라 우리 악단 전체 성원들의 한결 같은 심정은 위대한 나라만이 이런 위대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이다.

《모스크바 크레믈리》박물관 합창단 지휘자인 겐나지 드미뜨랴크는 오늘과 같은 훌륭한 공연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얼마전에 모스크바에서는 모스크바시형성 850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유명한 배우가 공연을 하여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은 오늘 작품에 비하면 하늘과 땅차이처럼 대비도 되지 않는다.

작품은 황홀하면서도 독특하고 이채로운것으로 하여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작품은 자기 조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뜨거운 사랑과 민족이 걸어 온 력사적과정을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작품이 너무도 황홀하여 출연자들 모두가 어릴 때부터 예술학원이나 예술대학을 졸업한 전문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예술계의 첫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훌륭한 공연은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60청춘의 비결》 도서 발행

조선에서 도서 《60청춘의 비결》을 발행하였다.

도서는 6개의 부분-정신력은 무한대, 체력과 정력은 타고 난것이 아니다, 식생활, 이, 목, 구,

비는 다 같은데, 자기 몸은 자기가, 자연의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로 구성되였다.

책은 60청춘의 비결의 첫 자리에는 무한대한 정력이 놓여 있으며 강한 정신력과 락관은 의지력에서 생성된다는것을 론증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은 곧 체력, 식사에 품을 들여 야 한다, 의식활동은 감각기로부터, 모든 의료활동은 자연료법으로부터, 100살은 먼 앞날이 아니다 등 수백개의 소제목으로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하는 의학지식과 건강상식자료들을 소개하였다.

각종 질병에 따르는 민간료법과 자체로 할수 있는 손, 발안마법도 있다.

이 도서는 조선의 의학계에서 권위 있는 남산병원 부원장 교수, 박사 류식이 집필하였다.

청년중시사상이 낳은 빛나는 결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김성훈부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조국청년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청년문제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오시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이의 령도 따라 조국청년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수행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대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이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딴 고통련 행사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딴고통련이 23일 체육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서 백영진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탁월한 위인으로서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영생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동포들은 그이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배구,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였다.

평양국제상품전람회, 5월에 열리게 된다

조선에서 제5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가 오는 5월에 열리게 된다.

이미 로씨야, 중국, 일본,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스위스, 스웨리예, 타이, 싱가포르 등 수십개 나라와 지역의 240여개 회사들이 참가신청을 하였다.

공업과 농업, 첨단기술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이번 전람회는 생산자, 무역업자, 경제분야의 상공회의소, 민간급무역협회 및 그 가입회사, 각국 대사관 무역참사들에게 새로운 협조와 무역활동의 기회를 가지게 할것이다.

전람회는 조선국제전람사에서 주최한다. 조선국제전람사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진행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기관이다.

전람사는 라선국제무역전람회(6월), 평양국제경제기술전람회(9월)도 개최하게 된다.

전람사는 지난 40여년간 국내외에서 연 380여차례의 상품전람회를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 기업체, 회사들과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였다.

김정일원수는 명망이 가장 높으신 령도자

로씨야신문

(모스크바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신문 ≪끄메르싼뜨≫ 26일부가 20명의 주요국가지도자들의 인기률의 순위를 발표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는 명망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고 보도하면서 그이의 존함을 세계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의 명단의 첫자리에 모시였다.

조일관계의 중핵문제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로동신문 론평 - 주체91, 3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가 발표된후 일본에서 괴이한 소리들이 소란스럽게 울려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동언론들과 극우익세력들은 ≪과잉기대는 시기상조≫라느니, 우리의 그 무슨 ≪유화책≫이라느니 뭐니 하며 허튼 잡소리들을 망탕 내돌리면서 조일관계에서 가장 중핵적인 문제로 되는 일본의 과거죄행청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는 우리의 ≪랍치≫문제에 대하여 법석 고아 대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 그 어떤 기대를 가지는것도 없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것도 없다. 이것을 모르는 일본반동언론들과 극우익세력들이 가련하기 짝이 없다. 가해자인 일본에서 과거청산문제는 외면하고 우리의 ≪랍치≫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당치 않는 못된 소리들을 내돌리고 있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은것이다.

랍치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할 소리이다. 일본이야말로 최대의 랍치범죄국가이며 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조선민족이다. 임진전쟁때의 랍치죄행은 그만두고라도 일제의 조선강점통치시기의 랍치범죄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것이였다.

일제는 조선강점 전 기간 중세기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600여만명의 청장년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살인적인 고역장과 전쟁판에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을 살륙하였다. 그들은 또한 강제로 근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어다가 꽃나이청춘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하는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이뿐이 아니다. 일제는 우리 인민이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 략타하고 막대한 량의 자연부원과 일체 생산물들을 빼앗아 갔다.

실로 일제가 강점통치시기 우리 인민에게 끼친 정신적, 인적, 물질적피해는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최대최악의것이였다.

우리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다. 조선전쟁시기 일본은 자기 령토를 미군의 침략기지로 내맡겼을뿐아니라 구일본군잔당들과 ≪경찰예비대≫를 조선전선에 투입하고 우리 조국땅을 불바다, 피바다로 만드는데 가담협력하여 ≪황금소나기≫를 맞았으며 군국주의재생, 재무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한세기에 걸쳐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였으며 조선의 통일과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 사죄하는것이 도리이고 법도이며 관례이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강점시기와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범하고도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사죄조차 똑똑히 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같은 전범국들인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는 이미전에 자기의 침략죄과에 대하여 사죄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와 인민들에게 철저한 보상을 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일본은 민심의 요구와 과거청산의 국제적추세에 등을 돌려 대고 지난 날의 침략범죄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고 있을뿐아니라 과거죄행을 인정하는것조차 거부하며 지어는 침략행위를 미화분식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얼마나 량심이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저렬하며 정치적으로 파렴치한가를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있다. 세상에 일본과 같이 파렴치한 나라는 없다.

오늘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과거죄행에 대한 청산을 바로 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것은 응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자기의 엄중한 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면서 있지도 않는 우리의 ≪랍치≫문제를 가지고 소동을 피우고 있는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된다.

사실 우리 민족치고 대를 이어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계산을 하려면 이것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그 무슨 ≪랍치≫문제따위 같은것은 여기에 비하면 론할 여지조차 없다.

일본이 조일관계에서 근본의 근본인 과거청산문제를 뒤전에 밀어 놓고 ≪랍치≫문제를 그 무슨 ≪주패장≫으로 전면에 내들려 하는것은 유치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 일본은 조일관계문제의 성격과 본질, 선후차를 옳바로 보고 관건적인 과거청산에 성근하게 림해야 한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응당한 의무이며 이것은 무엇으로써도 회피할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 대하여 응당 리행하여야 할 사죄, 보상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일 두 나라는 의연히 적대관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조일관계개선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지난 날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청산한 기초우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선린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조일관계개선에서 기본핵은 과거청산이다. 일본이 죄 많은 과거에 대하여 우리 인민에게 사죄하고 보상하기전에는 조일관계개선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는것은 우리의 당당한 권리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대에 일본의 과거죄행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것이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지난 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운 일본의 죄행에 대하여 끝까지 피값을 받아 낼 의지에 충만되여 있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오래 끌면 끌수록 더 큰 죄를 짓는것으로 되며 그만큼 빚도 늘어 나게 될것이다. 일본이 우리 인민의 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보지 않고 21세기에 허무맹랑한 ≪랍치≫문제를 계속 내들며 과거죄행을 덮어 두고 그 청산을 한사코 회피한다면 우리 인민의 대일분노가 폭발하고야 말것이며 그것은 일본의 멸망을 몰아 올것이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고 첨예하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예민하게 관찰하고 과거청산의 정치적결단을 하루빨리 내리는것이 좋을것이다.

일본반동언론들과 극우익세력들은 사태를 바로 보고 여론을 오도하며 우리를 걸고 드는 비렬한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언행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일본반동언론들과 극우익세력들이 일본에 대한 전체 조선민족의 피맺힌 원한과 분노를 외면하고 삐뚤어 진 소리를 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계속 못되게 놀아 댄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것이다.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남조선 인민들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6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30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신데 대하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남조선 인민들이 끝없이 칭송하고 흠모하는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이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칭송입니다.

평양상봉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으며 그들의 의식구조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 위에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데서 매우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칭송의 목소리가 어떻게 온 남녘의 민심광장에 울려퍼지고 있는가 하는것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영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분출구를 찾은 용암은 거대한 힘으로 대지위로 솟구쳐 올라 누리에 거세찬 화강을 휘뿌립니다. 7천만 겨레의 숙원을 풀어줄 통일의 영도자를 그리며 가슴들을 태우던 남녘의 민심이 그 용암이라면, 역사적인 6.15공동성명이 발표된 주체89(2000)년 6월의 사변은 그 용암을 대지위에 솟구쳐 오르게 한 분출구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칭송하는 남녘의 민심이 6월의 사변을 계기로 거대한 힘으로 폭발하여 온 남녘땅에 찬연한 화강을 뿌렸던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남녘의 민심은 무엇보다도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끝없이 매혹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탐복하여 그이를 칭송하고 흠모하는 민심이 높아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남조선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은 군사를 통솔하는 장군이시기에 기상이 서슬푸르고 엄한 분이실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과정을 실황중계하는 텔레비전을 직접 본 때부터 남조선 인민들은 ≪처음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김정일**국방위원장≫,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재발견≫ 이라는 격찬을 말들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조선 잡지 ≪말≫, 2000년 7호는 ≪평양상봉 기간동안 텔레비전으로 생생하게 공개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육성과 동영상은 이남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최대 화재는 단연 인간 **김정일**위원장이였다. 서민들은 버스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은 떡볶이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화재를 꽃피웠다. 이 대중적 충격은 ≪**김정일**충격≫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출판물들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충격, 그것은 쾌활한 친근감의 모습이 보여준 긍정적인 충격이였다. 그동안 텔레비전과 잡지를 통해 보아온데 비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인상이 훨씬 좋다. 특히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에 감명을 받았다. 또 통이 크고 호탕하고 자상하면서도 정치적 지도력이 뛰어난 분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거침이 없고 당당했다. 유머가 풍부하고 후식이 없었다. 순수한 면모도 엿보였다. 순간적인 재치도 대단했다.≫라고 썼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 가시는 정력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높이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상봉 첫날, 대통령 경호에 신경을 쓰는 남측 경호실장에게 한마디의 말로 마음을 푹 놓게 하시여 긴장한 분위기를 순간에 역전시키시고 또, 연회석상에서 시종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유쾌한 유머와 농담으로 연회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위인적 풍모에 남조선 인민들을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그 매혹에 대해 남조선의 ≪동아일보≫ 정치부차장은 자신의 체험과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의 반향들을 종합한 글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인간적 특징은 첫째로 솔직하고 소탈하신 것, 둘째로 대단한 카리스마(카리스마란 예언과 기적을 창조하는 신적 능력을 말합니다)를 소유하신 것, 셋째로 아는 것이 많고, 넷째로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다섯째로 거침 없으시면서도 예의가 깍듯하신 것≫이라고 썼습니다. 남조선 학계와 재계에서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권위와 함께 섬세함, 다정함, 치밀함, 예의감의 모습을 과시하였다. **김정일** 영도자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6월의 사변을 계기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인식에서 얼마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남녘의 민심은 다음으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숭배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계기로 남조선 출판물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함께 그이를 소개하는 글들이 실리고 책방들에서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관련한 도서들이 인기도서로 되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식 인사법과 대화법이 유행되고 그이께서 하신 유머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필법을 익히고 서예가들은 장군님의 필체묘사에 열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였던 색안경과 입으시였던 옷 형태가 널리 유행되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주로 출판물에 모셔지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역사적인 6월의 그 나날,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앞에 대형 벽화로 모셔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 ≪한겨레21≫ 2000년 6월 22일부는 ≪서울 한복판 경복궁 앞에 벽화로 내걸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초상, 미소를 머금은 따뜻한 얼굴로 서울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끝없는 숭배심은 남조선 전국 각지에 차넘쳐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신문 ≪한겨레21≫ 2000년 7월 6일부는 ≪이남 사회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였다. 오랜 세월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던 미이라가 갑자기 공기를 쏘이면 순식간에 산화해 버리듯 폐쇄된 정보속에서 형성된 북과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이남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2박3일 동안 평양을 지켜보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라고 썼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남녘의 민심은 또한,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데로 지향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월의 사변을 계기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조국통일은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각계각층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일** 장군님만이 바로 그러한 자질을 갖추신 위대한 분이라는 숭배의 주장이 널리 퍼지게 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이념서클모임에 참가한 한 교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모시게 된 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더없이 큰 경사이고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인디아인 타고르가 예언한 동방의 밝은 빛이 되시여 우주를 밝히며 현 시기 후계자 결핍증에 걸려있는 사막같은 세계에 향도력의 오아시스를 보여주시는 천상에 없고 천하에 없는 영걸이시다. 세계적인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수로 높이 모신 것은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이 지닌 행운 중에 행운이고 복중에 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주민은 어느 신문사 편집국에 보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김정일**장군님께 오늘의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고 따를 때 나 개인의 참된 삶은 물론, 통일된 조국도 민족의 융성번영도 기약되여 있다는 확신에서 그 분을 숭배하고 따르고 흠모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이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는 것이 남녘 민심의 한결같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들에서 보여주신 그렇듯 놀라운 영도력과 고귀한 풍모를 구현하시여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있던 주체89(2000)년 6월 14일, 남조선의 ≪한겨레≫신문 편집부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권영환이라고 하는 손님은 뜻밖에도 오른손이 없는 불구자로써 왼손으로 쓴 시 한편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시를 위대한 장군님께 직접 올리지 못하는 아쉬운 점을 금치 못하면서 신문에라도 실어 장군님께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시의 구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푸른 숲 빽빽이 어우려져
초록으로 북상하오니
곱게 무르익어
아름다운 단풍으로 남하하소서

이 시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흠모의 마음과 통일의 염원이 푸른 숲을 이루어 북녘으로 달려가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숙원을 풍부한 열매로 익히시여 남쪽으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는 그런 절절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한번의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이처럼 온 남녘땅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격정으로 끓어 번지게 한 그 바탕에는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에 우리 민족을 통일에로 이끌어 가실 희세의 위인의 참모습이 어려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남녘의 민심이 절세의 위인에게로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7천만 온 겨레는 조국통일도 통일된 강성대국 건설도 능히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결속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청강생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오늘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기념특강을 조직했습니다. 특강은 주체91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 기간에 14번에 나누어 보내드리게 됩니다. 청강생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주의 깊게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일 총파업 궐기로 이어진 민중대회

대구경북민중대회, ≪발전소 매각저지와 무기강매 저지. 미국반대. 김대중 정권반대≫

지난 30일 오후 2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발전소 매각저지와 무기강매 저지. 미국반대. 김대중 정권반대≫ 등의 표어 아래 2002년 1차 대구경북민중대회(이하 민중대회)가 열렸다.

800여명 가량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민중대회≫가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은 일반 시민들을 향해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먹는 것은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꼴이다≫고 언급하면서 ≪아예, 그럴 바에는 청와대를 팔아먹지≫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또한 대회 참석자들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4월 총파업으로서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어떤 시민은 ≪나라팔아 엿바꿔 먹으려고 그러느냐≫면서 항의를 보내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에는 ≪한 달간 지속된 발전노동자의 파업투쟁은 발전소 민영화가 가져올 전기료 폭등,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투쟁≫이라고 소개하면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열을 올리는 정권에게 기간산업 민영화 철회와 정부의 매국적인 노동정책으로 발생된 사태해결을 촉구,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한 폭력적 탄압중단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29일(금) 오후 4시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 노동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본원칙이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으며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 ≪불법이라도 끈질기게 요구하면 관철된다≫는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아 나간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총파업 투쟁 민중대회 대표연설자로 나선 함철호 상임의장(민중연대)은 ≪전시에 작전권 조차도 없는 국가가 무엇 때문에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사람잡는 무기를 구입하려고 안달인지 모르겠다≫면서 ≪발전소 팔아 쓰지도 못하는 고물덩어리 전투기를 살 모양이다≫고 비난했다.

정치연설에 나선 박배일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은 ≪발전소는 우리 산업 중에도 가장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높고 우량한 기관≫이라며 ≪노름빚 때문에 처자식을 팔아먹는 꼴과 무엇이 다르냐≫고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연이어 정치연설로 나선 이태기 위원장(공무원직장협의회 대구. 경북연합)은 ≪공직협은 이제 갓 출발한 햇병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지난 3월 23일 공무원노조가 대대적인 출범을 하고 나서 우리는 자긍심을 느끼지만 과거 전교조를 마치 빨갱이처럼 여기고 탄압하며 눈총을 주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사죄한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출범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추민석 임시회장(대경총련)은 ≪미국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우리도 ≪미국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광장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행진하면서 도심지에 나온 시민들을 향해 선전전을 펼쳐가면서 재래시장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까지 행진을 했다.

20여분간 노상에서 시위를 벌인 참석자들은 ≪정치연설≫과 자. 해. 단의 몸짓율동에 한바탕 춤판을 벌인 뒤 ≪4월 2일 총파업에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궐기해달라≫면서 민중대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역의 노동계. 경제. 지식인들이 합세하여 발전노조 탄압에 대해 ≪총파업≫으로 몰고 간다는 방침 속에 지역인사들의 선언(4.1 대구참여연대), 파업동참, 파업집회(4.2 국채보상공원) 등을 예정해 놓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한기자
오마이뉴스 2002/03/31

故최옥란씨 장례위 ≪경찰규탄≫집회

장례위원회 서울경찰청장 직권남용 · 불법감금 · 폭행으로 고소키로

지난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장애인 운동가 고 최옥란씨 노제와 장례식이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38개 노동 · 사회 ·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해방운동가 최옥란 열사 장례위원회≫(공동위원장 강동진 권영길 외 26명)는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폭력규탄과 서울경찰청장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지연되는 소동을 빚었다.

장례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경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 측의 저지로 약 40여분 뒤 정문에서 4~5m떨어진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은 회견을 위해 정문으로 향하던 회견단 일행을 도로상에서 막아섰으며 장례위원회 참가인단과 경찰측이 몸싸움을 벌이다 참가자 2명이 경찰차로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회견을 위해 모인 장례위원회 참가자들을 구석으로 몰아붙인 채 약 1시간여 동안 가로막고 정문일대를 봉쇄했다. 장례위원회측은 시위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무슨 근거로 막느냐≫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정문에서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박경석 교장(노들야학)은 ≪차별과 아픔으로 살던 한 장애인이 경찰의 방해로 세상에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며 ≪우리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경찰이 자의적인 잣대로 불법폭력, 구금을 자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폭력경찰은 시민에게 필요 없다 이들은 이사회의 악취다≫라고 말하며 악취제거제를 경찰에 뿌리기도 했다.

40분간의 소동 끝에 장례위원회는 경찰에 봉쇄 당한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진보연대 홍석만씨는 ≪경찰폭력 만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서울경찰청장을 고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하고 정당한 기자회견조차 막아서는 경찰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기자회견 방해도 추가해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장례행렬을 가로막고 노상에서 강제 불법 구금한 서울시 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할 것 △유가족과 장례위원회에 사과하고 부상과 차량훼손에 대해 보상할 것△최옥란씨등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례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 불법감금 ·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던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약 3차례 불법 감금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에 장례식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 158조의 장례식등 방해죄에, 운구차량을 막아서 일반시민의 교통에 혼잡을 초래해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례위원회는 경찰청장은 불법감금을 지휘하고, 참석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교사해 4명의 장애인과 유족에게 상해를 입혀 △형법 제 124조의 불법감금죄와 △형법 제 125조의 폭행 및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장례위원회는 정부가 이날 밝힌 폭행 관련자 처벌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제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30

민주노총 ≪2차 연대총파업≫ 강행

민주노총이 내달 2일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연대 총파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용자측이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방침을 밝히는 등 노사. 노정 실력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징계 위원회가 3일로 예정돼 있어 파업 사태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움직임

민주노총은 30일 총파업 조직현황을 점검하고 세부투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오후 1시부터 4일까지 총파업 1단계 투쟁을 벌이고 9일부터 2단계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단계 투쟁에는 금속연맹 소속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공공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화학연맹, 화물노조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벌이지 않는 노조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상 보장된 조합원 교육 등의 형태로 지역별 파업 집회에 참가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6개 연맹 416개 사업장에서 18만5천여명이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다음달 1일 오후 전교조 회의실에서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투쟁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9일부터 철도.가스 재파업과 항공사 파업 등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철도.가스 노조는 이날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사유화 방침 철회, 발전노조 사태 해결, 현장탄압 중단 등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단노조 등 항공 관련 6개 노조는 4월1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측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한 뒤 연대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 및 사용자 대응

검찰은 31일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발전노조 파업에 동조해 연대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업 주도자를 엄단키로 했다.

또 동료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하는 노조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고, 업무복귀를 약속해 입건유예 조치를 받은 노조원이 파업에 다시 가담할 경우 전원 입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도 발전파업 장기화로 인한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데다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팔호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이근식 행자부장관, 명동성당 백남용 신부를 만나 공권력 투입 요청을 완곡히 부탁한데 이어 이대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28일 명동성당을 방문,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을 등지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것은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교사들의 조퇴투쟁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앞서 지난 26일 민노총의 연대파업 결의에 대한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연대파업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2월말 1차 총파업 때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묻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이번에 책임을 확실히 묻고 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한기자
연합뉴스 2002/03/31

부패방지위, 장관급등 3명 첫고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30일 부패혐의가 신고된 전현직 장관급 및 차관급 현직 검사 등 3명을 금품상납,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방위 사무실에서 긴급 전체위원회를 연 뒤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혐의로 신고된 장관급 등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25일 출범한 부방위가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를 확인,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한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해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가 금품 · 향응 제공자의 자진신고로 드러났다.

현직 차관급 검사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직위를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1주일에 2-3번씩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상사인 장관급(전 검찰총장) 인사 K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방위는 이 전직 장관급 K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고발된 부패혐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 그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하며, 수사의뢰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방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출범한 부방위의 이같은 활동결과는 앞으로 검찰 등 사정당국의 정치인 등에 대한 사정과 함께 그동안 사정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사정당국에 대한 부패감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2/03/30

박정희 기념관, 기공식 없이 착공

건립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박정희 기념관≫이 두 달 전 기공식 없이 비밀리에 착공에 들어갔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29일 ≪1월29일 마포구 상암 근린 제4공원에 박정희 기념관 공사가 시작돼 2004년 5월경 완공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정부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왜 별도의 기공식을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9일 현장을 방문한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anti516.jinbo.net)의 이관복 상임 공동대표는 ≪3월경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 지난 18일에도 상암동 공원에 답사를 왔었다. 그런데 당초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장소가 아니라 공사 예정지의 뒤편 야산에서 공사가 시작돼 이를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러나 통상적인 시위나 서명운동으로는 공사를 막기 힘들 것 같다≫며 실력 저지 등의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손병관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9

군부내 최대 친미파, 김동신

≪F15파≫ 김동신 국방장관, 지난해 美정부로부터 공로훈장 받아

김동신 국방장관(61)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잉의 F15 구매를 앞장서 강행하면서, 김장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처럼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단 말인가. 그것도 국정원장 등 정부부처 실력자 상당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

일각에서는 김장관의 이같은 행보가 김대중대통령의 묵인이 있기에 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6조원대에 달하는 F15 구매란 아무리 주무장관이라고는 하나 김장관 혼자의 독단으로 밀어붙이기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장관이 군부내 대표적 친미파라는 대목에서 김장관의 행보에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김장관이 군부내 최대실력자로 성장해온 과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장관은 처음부터 미국의 F15를 내심 차세대전투기(FX)로 정해놓고 기종 기술평가를 해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장관의 돌파력은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군 관계자들은 그 뿌리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김장관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육사에 입학했다(21기). 육사졸업후 주목되는 경력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는 대목이다. 그의 학구열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대에서 닦은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76년 미국 육군지휘참모대를 졸업했고 87년에는 미국 해군대학원 연수를 받았으며 88년에는 영국 국방대를 졸업했다. 김장관이 군부내 최대 친미파로 불리는 이유도 이같은 경력에서 비롯된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차 미국을 방문한 김동신 국방장관이 9.11테러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군부 최고의 미국통이자 친미파

그의 군경력은 더욱 주목할만하다. 그의 야전경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는 야전생활을 마치고 84년부터 국방부로 들어왔고 이어 90~92년 수도군단장(중장)을 거쳐 92년부터 합참 전략기획부장(소장), 수도군단장(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거쳐 96년에는 호남출신 최초로 4성장군이 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에 임명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통상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선택된다. 미군의 직접적 대화 파트너이자 창구이기 때문이다.

김장관이 96년 김영삼정부 시절에 호남 출신으로는 사상최초로 4성장군이 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된 이면에는 미국의 입김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장관과 미국의 밀착관계를 엿볼 수 있는 또다른 대목은 그의 상훈 기록이다.

그는 지금까지 네 차례 미국으로부터 훈장 및 포상을 받았다.

77년 미국 근무공로훈장, 98년 미국공로훈장, 2000년 1월 미국 지휘참모대로부터 받은 ≪모교를 빛낸 외국군 졸업생상≫, 그리고 지난해 1월의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공로훈장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차세대전투기 사업 입찰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김장관이 미국으로부터 잇따라 상과 훈장을 받은 대목에 대해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다.

김장관, 지난해부터 F15 구매 앞장서 주장

김장관이 ≪실력파≫라는 사실은 군 관계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실력외에 미국이라는 요인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김장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김장관은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편향적 시각을 드러내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 대표적 예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다. 그는 ≪구매에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상호호환성, 연합작전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골적인 미국 F15 지지 발언이었다. 김장관의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당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측이 노골적으로 F15 구매를 강요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제에 없던 한국공군의 차세대전투기 선정을 언급, 우회적으로 F15 구매를 강요했다.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정책차장은 더 노골적으로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할 때 F15가 가장 적절한 기종≫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런 미국측 압박이 가해진 뒤 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일한 시각을 밝혔으니, 논란은 당연했다. 실제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미국정부의 로비스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 직후인 지난해 11월18일(현지시간) ≪서울의 전투기 선정 지연으로 타격을 입은 보잉사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의 국방부는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F15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도 워싱턴과의 동맹관계 손상을 꺼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김동신 장관을 필두로 하는 국방부의 강력한 F15 구매 주장에 청와대까지도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였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김장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오던 중 국방부는 거센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27일 F15 구매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일각에서는 ≪이제 공은 김대중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말한다.

F15 구매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김대통령에게 ≪재가≫를 하지 말라는 공개압력을 가하고 있다.

과연 김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에 따라 김장관의 F15 밀어붙이기가 미국과의 밀착에 따른 그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최고위층과의 사전협의의 결과물인지가 분명해질 전망이다.

박태견기자
프레시안 2002/03/29

≪절반의 반환≫ 半만 찾은 자존심

한·미 양국이 29일 서명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미군 기지 및 훈련장 재배치 계획) 협정은 주한미군 기지 및 시설 등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통·폐합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저하를 막으면서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아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국가가 보유한 지역을 제외한 미군 훈련장 3천5백여만평이 원소유주인 민간인에게 반환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특히 재산권 행사가 100% 제한받았던 전용 공여지 소유주가 받을 혜택이 크다.

또 파주와 동두천, 포천지역 훈련장과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 집중된 전투관련 시설이 대거 반환대상에 포함된 것은 향후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의 반환대상 토지는 도시의 팽창으로 고질적 민원대상이 되면서 반미감정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부산 캠프 하야리아 등 대도시 지역의 도심에 위치,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었던 문제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반환되는 곳

파주지역 6곳, 의정부·동두천 7곳 등 서울 이북지역의 16곳이 포함됐다. 또 경기 하남의 캠프 콜번과 강원 원주의 캠프 롱 일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군산비행장 주변 등 기지 9곳이 추가됐다. 서울의 극동공병단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8곳이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향후 절차 및 문제점

기지 반환작업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연도별로 진행되지만 실제로 기지 반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0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장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가 미군측에 신규 제공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또 매향리 사격장(7백60만평) 등 3곳은 결국 반환대상에서 제외됐고 용산기지는 중장기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반환되는 기지내 환경오염과 관련해 미측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집해 책임을 지지 않기로 최종합의, 결국 우리측이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임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성진기자
경향신문 2002/03/29

매향리 사격장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 (4)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최근논문의 비교연구

차 례

서론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2. 두 논문의 의의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7. 새로운 이론쟁점
▶결론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두 논문의 새로운 견해에 대한 이견이 이남 운동대오내에 존재한다. 수많은 운동가들의 견해를 일치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격변하는 정세에 대한 인식과 그 정세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전술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일부단위는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논문들이 담고 있는 새로운 견해에 대하여 ≪북미결정론≫으로 규정하고 ≪비주체적≫인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첨예한 이론논쟁을 촉발시켰다. 현재 이러한 이론논쟁은 현장에서의 이견, 정세관, 정치노선, 조직노선, 투쟁노선 상의 이견을 반영하며 종결될 줄 모르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현 이론논쟁이 날카로운 사상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실천투쟁과 밀접히 관련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는 총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두 이론가는 일부단위의 비판에 대하여 후속논문에서 차분하고 분명하게 반박하는 한편 나아가 기성이론과 대비하면서 새로운 견해들을 연속 제출하며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이론논쟁의 쟁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전국적 관점과 반국적 관점에 대한 쟁점이다. 필자가 보기엔 일부단위의 견해의 기초에는 반국적 관점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부단위가 제출한 논문을 보면 그 비판논문의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반국적 관점에서 특히 ≪이론문제≫의 주요내용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단위의 반국적 관점에 대하여 ≪이론문제≫의 후속편이 전국적 관점에서 전면적인 해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론문제≫에 이미 나와있으므로 생략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것은 둘째, 전략적 통일전선에 대한 쟁점이다. 일부단위가 제출한 논문을 보면 그 개수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논쟁이 정리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단위에서 전략적 통일전선의 개념을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으로 정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론문제≫에서 제출한 지역통일전선관련 견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결과 현장에서도 조직노선, 투쟁전술면에서의 심각한 견해차이가 반복심화되고 있다.

그것은 세째, 통일전선운동의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에 대한 쟁점이다. 일부단위에서 운동동력을 중심과 보조, 주도와 방조로 나누는 것을 주체성과 책임성 문제로 제기한 데 대하여 ≪이론문제≫나 ≪전략적 과업≫은 이를 역량관계상의 구분이라며 명확히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전략적 과업≫은 중심동력이 주체적이고 우월한 반면 보조동력은 비주체적이며 열등하다는 사고는 소아병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네째, 민족해방혁명론의 쟁점이다. 일부단위에서는 ≪이론문제≫가 조선혁명의 성격을 단일하게 민족해방혁명이라고 규정한 부분과 조선혁명과 두 지역혁명의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일부단위의 이러한 오해와 반국적 관점을 재차 반박할 것인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후속편이 주목된다.

그것은 다섯째, 혁명영도체계론의 쟁점이다. 일부단위에서는 ≪이론문제≫가 전위당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론문제≫의 후속편에서 분명하고 상세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일부단위의 비판을 충분히 예상하고 집필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향후 이론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이론논쟁이 가지는 특징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특징은 첫째로, 현 이론논쟁이 결국 주체의 전략전술의 기성이론과 새로운 이론과의 대결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이론논쟁은 두 이론가의 논문을 둘러싸고 기성이론을 따르는 일부단위와 새로운 이론을 제출한 두 이론가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기성이론을 보완할 만큼 정세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두 이론가의 새로운 이론들이 기성이론의 핵심을 계승하고 정세변화에 맞게 발전시킨 진리인지의 여부가 이론논쟁의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그 특징은 둘째로, 현 이론논쟁이 본질상 사상투쟁이라는 점이다. 현 이론논쟁은 각각 전국적 관점과 반국적 관점에 서서 서로를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로 비판하며 날카로운 사상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특징은 세째로, 현 이론논쟁이 다방면에서 결쳐서 매우 폭 넓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이론논쟁은 정세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운동대오의 정치노선, 조직노선, 투쟁노선을 포괄하며 주체의 전략전술의 주요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 특징은 네째로, 현 이론논쟁이 끊임 없이 심화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이론논쟁은 초기에 통일전선론에 집중되더니 지금은 전위당론으로 이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전선론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관련하여, 민족해방혁명론이 전국적 관점에서 재조명된다든지, 일반민주주의단계론과 민족통일기구론이 새롭게 제출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을 말해준다.

그 특징은 다섯째로, 현 이론논쟁이 철저하게 두 이론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가는 일부단위의 비판에 유념하면서도 자신의 새로운 견해들을 연속 제출하며 새로운 단계로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일부단위는 두 이론가의 논문의 개념과 이론을 오해하는 한편 그 심화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두 이론가는 자신의 견해들에 대한 이견까지도 예상하거나 심지어 유도하면서 이남민족민주대오 내의 이론논쟁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키고 있다.

그 특징은 여섯째로, 현 이론논쟁이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노선논쟁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현 이론논쟁은 단순한 이론상의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치열한 노선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 통일연대를 비롯한 제 연합전선의 위상과 역할을 비롯하여 향후투쟁의 전략과 전술, 당면집중타격지점 등과 관련한 조직노선, 투쟁노선상의 논쟁이 이론논쟁과 연관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특징은 일곱째로, 현 이론논쟁에서 두 이론가의 새로운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가의 논문에 대한 일부단위의 이견이 초기에는 일정한 지지를 받았으나 두 이론가의 후속논문들이 속속 발표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한호석소장의 논문들이 전국연합의 기관지인 ≪민≫지 11월호와 12월호에 연속적으로 실리는가 하면 최성원동지의 논문들에 대해 지지하는 운동가들이 확산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다. 실제로 ≪이론문제≫에 대한 일부단위의 최근비판은 ≪두개전선≫에 대한 비판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 특징은 여덟째로, 현 이론논쟁에 임하는 자세에서 두 이론가가 일부단위보다 확고히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가는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제 3자가 보기에도 심하게 곡해하고 비판하는 일부단위의 견해에 대하여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면서도 침착하게 반박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는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상대에 수준과 정서를 이해하며 아량 있게 대응하는 두 이론가의 논쟁자세는 귀감이라고 할 것이다.

7. 새로운 이론쟁점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방대하고 미묘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이론문제에서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문제≫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혁명영도체계와 관련하여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관계문제이다. ≪이론문제≫는 통일전선이론, 민족해방이론의 기성이론을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해명하는 한편 이남 운동대오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전위당론의 재해명을 전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즉 ≪이론문제≫는 조선노동당과 이남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의 조직적 결합을 통한 혁명영도체계를 수립할 때에만 이남민족민주전선을 강고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자주적 민주정부도 수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해방혁명역량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출한 것이며 그만큼 통일혁명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더불어 이는 이남 운동대오 내의 초보적 상식과 같은 한민전의 독자적 지위에 대한 전격적인 문제제기로 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론문제≫가 제출한 혁명영도체계론은 이와 관련한 향후 이론논쟁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최성원동지가 ≪두개전선≫에서부터 이러한 이론논쟁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고 보며 최성원동지가 앞으로 ≪통일여명≫편집국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든 일부단위의 비판에 대한 반박형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필자를 비롯하여 ≪통일여명≫편집국은 전위당 관련 이론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자기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발표는 최성원동지의 후속논문과 그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이론문제≫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이론문제≫는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는 통일전선이 단순한 통일전선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차원으로 상승발전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견해가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개념 차이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이북의 경우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조선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간의 통일전선을 현실변화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그리고 인전대에 대한 견해가 보완정립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에 대한 일부단위의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론문제≫의 후속편이 응당한 이론적 해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세째, ≪전략적 과업≫으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일반민주주의에 대한 견해이다. 과연 한호석소장이 제출한 일반민주주의단계가 꼭 필요한지 민중민주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다 심화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호석소장은 이전논문(≪통일방안 논의와 통일경로 전망≫, 1996. 5)에서 일반민주주의를 부르조아민주주의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필자가 보기엔 일반민주주의는 부르조아민주주의범주안에 포섭되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하여 왔던 일반적인 의미의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며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전략적 과업≫이 밝혔듯이 일반민주주의는 파쇼적인 악법과 기구를 철폐하며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운동대오 일각에서는 민중민주주의를 자주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념상 교통정리도 필요할 것이다.

네째, ≪전략적 과업≫으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민족통일전선의 두 개의 성격에 대한 견해와 민족자주와 민족해방의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현재 이남 활동가들이 민족통일전선과 민족자주,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자체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략적 과업≫의 개괄적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반제자주적 성격의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상호관계와 함께 민족자주위업과 북측 지역혁명의 상호관계와 같은 부분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필자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의의와 그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도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개전선≫에서는 전략적 타격투쟁과 전술적 타격투쟁의 개념으로 반정부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차이점을, ≪이론문제≫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의 개념과 관련하여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전략적 과업≫을 포함하여 한호석소장의 많은 논문에서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국내 반통일세력)과 개혁세력(통일지향세력)이라는 개념으로 친미예속세력을 둘로 구분하여 대응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현정권이 개혁성과 화해협력성을 견지하는 한 온전한 민주정권도 군사정권과 같은 파쇼정권도 아니며 현재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은 그 과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운동대오의 타격대상은 현정부가 아니라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이며 투쟁과업은 통일민주운동의 기본과제인 국가보안법철폐라고 할 수 있다. 부언하면 우리 운동대오의 당면과업은 정권퇴진투쟁이라는 반정부투쟁이 아니라 반민주반통일세력제압과 국가보안법철폐라는 것이다. 우리 운동대오가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의의와 그 상호관계, 현정부와 반민주반통일세력을 대하는 입장에 대한 견해 차이를 시급히 극복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보다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정세가 변하면 이론도 변할 수밖에 없다. 주체의 전략전술도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관정세의 변화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발전하는 것이다.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은 조국의 혁명정세, 통일정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지금은 이러한 정세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당시의 기성이론을 보완하며 새롭게 정립할 때이다. 정세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이 없는 한 승리는 요원하며 패배는 불가피하다. 정세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전술론을 이남 운동대오에 제출한 논문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단연 돋보이는 수작 논문이다. 두 논문은 첨예한 이론논쟁을 촉발하고 해결하는 한편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작이기도 하다. 두 이론가의 새로운 견해는 더욱 심화발전되어야 하며 갈수록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이 글은 두 이론가의 새로운 견해와 적극적인 탐구자세에 대한 동지적 지지와 찬사의 표현으로 된다.

(끝)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6호)

하나 민족도 나나

조국통일3대헌장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2)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함께 북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몸소 추진시켜나가시였다.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남수재민들에 대한 이북민중의 구호물자송달은 그분의 숭고한 동포애에서 나온 사랑의 조치였다.

1984년 8월말에 례년에 없이 많은 비가 내렸다. 이무렵 동해안지구와 평남도일대에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그분께서는 어느날 밤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을 보시며 측근의 한 간부에게 다음과 같은 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비가 자꾸 내리니 남조선인민들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비가 퍼부으면 남조선에 영낙없이 큰 물이 집니다. 큰물이 나면 그들이 또 고통을 당할게 아닙니까.… 밤이 깊어가면 그리움이 간절해지는가 봅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생각만 떠오르면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조국의 분렬 때문에 겪고있는 남녘동포들의 불행은 나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계속하여 그분께서는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분렬된 조국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비가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거듭 외우시였다. 그렇지만 비는 멎지 않았고 그분께서 우려하신대로 끝내 남녘에서 8월말과 9월초에 걸쳐 쏟아부은 폭우로 대홍수가 나고말았다.

이남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수재로 3백 50명이 사망하고 20만 7천여명의 리재민이 났으며 3만 6천 7백여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많은 농경지가 류실, 매몰되는 참상이 빚어졌다.

이 기막힌 통보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측근의 간부에게 이렇게 이르시였다.

≪우리는 수해를 입은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뜨거운 혈육의 정이 깃든 구호물자를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한지에서 떨고있을 리재민들을 걱정하시며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해 하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수재민들의 피해상황을 헤아리시고 수재민들은 당장 식량, 주택, 의약품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시며 적십자기구를 통해 쌀5만석, 천50만메터, 세멘트 10만톤, 많은 량의 의약품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 구호물자는 금액으로 볼 때 국제적십자구제운동사에 일찍이 없었던 1천 8백만불에 해당하는 거액이였다. (계속)